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분노왕(재)	00 KBS 뉴스광장	00 코토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00 채널A 아침보이 30 다섯 남자의 오!머니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멘터리 환경수호, 자연과의 공존	30 아침연속극 <담심여자>
9 2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생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논설주간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지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이영돈PD의 막걸리X파일(재)	00 교실이이기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아이리스>(재)	00 주말연속극 <아들 녀석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뉴스 현장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마을 이야기 울림중앙 스페셜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1 김광현의 텃밭평명	00 KBS결자선 (가시나무새)(재)		10 MBC파워매거진	30 세네포드(재)
2 30 갈매기재 기보(재)	00 KBS뉴스 10 중계방송 잠깐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0 퀴즈 쇼 사총사(재)	00 MBC 2시 뉴스 10 문화 4편(재)	30 SBS뉴스 4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유진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3 40 이언경의 직인직설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우주 신나는 세계여행	
4 50 박중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황금바다-부산	00 외골목 골고름(재) 30 TV유치원	00 뽀뽀 아이즈아 30 인생 토로마	00 꿈의보석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못말리는 리버와 비트피터 (재) 15 뽀뽀아 놀자(재) 30 오아시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20 뉴스와이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10 MBC 대기행 <안녕! 오케스트라>	
7 30 특집 관찰카메라 24시간 대통령 취임식 현장	00 KBS 뉴스7 30 스키야드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40 그대 그 사람 재림	25 일일연속극 <원내외 미스터리>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비터민	50 MBC 스페셜 <슬픈 전쟁, 두미도 몇몇지> 55 수목미니시리즈 <7급 공무원>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날씨와 생활 50 한밤의 TV연예
9 5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드라마스페셜 <그 겨울 바람이 분다>
10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 2>		
11 00 분노왕	00 KBS 뉴스타임 40 수요기획	2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0 짝
12 10 박중진의 쾌도난마(재) ①:30 기자레이서 석동빈의 카톡(재)	30 KBS 뉴스 40 클래식 오디세이 ①:3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아이리스의 꿈 2편)(재)	20 스포츠 하이лай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①:0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55 스포츠 와이드 2013 AFC 챔피언스리그	35 나이트라인 ①:00 필라리아 영화산책(재) 30 한국의 숲 스페셜

모성에 누른 부성애, 안방·스크린 사로잡다

다양한 부성애 표현... 드라마 '내 딸 서영이' 등 인기

2006년 관객 1천300만 명을 모은 영화 '괴물'에는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아빠만 있다. 당시 봉준호 감독은 "솔직히 말해 엄마가 등장하면 괴물을 잡아죽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엄마를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강인한 모성에는 제아무리 괴물이라도 어떻게든 죽였을 것 같다는 것이다. 부성애를 껴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모성과의 비교해 한 채급 아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MBC '일말의 새코너-아빠! 어디가?'

하지만 2013년 안방과 스크린에서 부성애가 동시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막론하고 부성애를 내세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KBS 2TV 주말극 '내 딸 서영이'는 아버지 이삼재(천호진 분)의 장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조명하며 종영을 앞두고 최근 시청률이 46%까지 올랐다.

지난 24일 방송된 48부에서는 온갖 과고를 넘어 아버지가 행복을 목전에 두고 죽을 운명의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끝까지 시청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삼재를 연기한 천호진은 22일 종방연에서 "30년 연기 외길인생을 걸었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인 누명을 쓰고 고도소에 갇힌 옹구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생이별하게 되는 과정을 객석에 눈물 폭탄을 터뜨린다.

오랜 무명 끝에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한 주인공 류승룡은 비록 남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하지만 딸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부성애를 표현하며 감동을 준다.

예능 프로그램도 있다.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코너 '아빠! 어디가?'는 제목에서부터 아빠를 내세운다.

지난달 6일 첫선을 보인 '아빠! 어디가?'는 아빠 옹구(류승룡)와 7세의 딸말하고 예쁜 딸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살

침을 1위를 차지했다.

연출을 맡은 김유근 PD는 "'아빠! 어디가?'는 큰 틀에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며 "아빠가 갈수록 아이와 멀어지고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는데 여행을 통해서 아빠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방송 관계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적인 아버지상이 퇴조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상이 부각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부성애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18일 甲子)

<p>子</p> <p>3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리라. 48년생 원하고 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있다. 60년생 부담스럽다면 사양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사막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임하자. 84년생 제대로 처리될 지 의문이다. 행운의 숫자 : 49, 63</p>	<p>午</p> <p>42년생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54년생 구상은 좋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66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으니라. 78년생 지속 가능한 것에 주력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72</p>
<p>丑</p> <p>37년생 주저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다. 49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겠다. 61년생 기선을 제압하자. 73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관국을 망칠 수도 있다. 85년생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27, 85</p>	<p>未</p> <p>43년생 응용만 잘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5년생 상황을 잘 살피고 후에 행하자. 67년생 강력한 기대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79년생 긍정적인 발진적으로 이끌어야 의미가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7, 55</p>
<p>寅</p> <p>38년생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리라. 50년생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62년생 충실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4년생 숨은 노력이 계속 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08, 16</p>	<p>申</p> <p>44년생 정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56년생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68년생 세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80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60</p>
<p>卯</p> <p>39년생 경증을 가려야 할 때다. 51년생 몸을 낮추어 처신할 수도 있어야겠다. 63년생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에 휩쓸릴 수 있다. 75년생 숨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회복하리라. 행운의 숫자 : 23, 36</p>	<p>酉</p> <p>45년생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57년생 힘든 만큼 고뇌의 깊어도 심해지리라. 69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겠다. 81년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2, 87</p>
<p>辰</p> <p>40년생 불평한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52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시비에 휘말린다. 64년생 활동에 비례하는 이익이 따를 것이니 본격적으로 나서자. 76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4, 43</p>	<p>戌</p> <p>46년생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58년생 평소 우의를 돈독히 해놓는 것이 좋다. 70년생 완전할 수는 없으니라. 82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을 보장받은 셈이다. 행운의 숫자 : 74, 92</p>
<p>巳</p> <p>41년생 구체적이어야 하니라. 53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65년생 투명하게 진행해야 오해가 없는 법이다. 77년생 조금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8, 45</p>	<p>亥</p> <p>47년생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좋다. 59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법이다. 71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처리해야 한다. 83년생 꼭 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4, 4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건강환 아침	09:40 깨미
06:1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06:30 성룡! 인생 후반전	10:10 세계대미행
07:00 곤	(인도차이나) 별천지 베트남
07:15 비투와 친구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7:30 마이의 모험	11:20 부모
07:45 부흥! 부흥! 부흥미즈	(부모 주치의-대변 건강)
08:00 덩둥덩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08:20 시계마을 타기톡	12:10 EBS 다큐프라임
08:35 꼬마버스 타요	13:05 EBS 인문학 특강
08:50 춤추는 곰 콩아	14:00 지식재빨리
09:00 방구대장 뽕뽕이	14:05 영어유치원 오! 기버기버
09:15 푸비푸비 눈보리	14:30 친척폭폭 차강설
09:30 피들리팝	15:00 꼬마기사 마이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00:50 내신 6급	07:30 EBS 생활영어
01:40 포스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02:30 "	08:30 검증고시 교육강좌
03:20 "	09:10 TV중학
04:10 "	09:50 "
05:00 "	10:30 이야기 한국미술사
05:50 탐스런	11:10 TV 중학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1:50 TV중학 2학년
	12:30 "
07:30 "	13:10 TV중학 3학년
08:20 탐스런	13:50 뽀뽀한영
09:10 "	14:10 신비탐험 실험실
10:00 "	14:30 골짜기 초등학교 문법(1/2)
10:50 "	15:10 사회가 속속!
	15:20 초등 내용 탐남
	15:50 "
	16:20 "
	16:40 "
	17:20 초등개념잡기
	18:00 중학 학습비법 특강
	18:40 이야기 한국사
	19:20 세계의 아이들
	20:00 월초보 중학영어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1:20 동인신문
	22:00 중국 3패킷 체크업
	22:40 TV중학 3학년
	23:20 "
	24:00 EBS 생활영어(재)

코토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쟁구위	오하요우 니혼고
<p>You are getting wet</p> <p>너 흠뻑 젖었구나</p> <p>A : You're getting wet. B : Yes. I was caught in the rain. A : That's too bad. I didn't know it was raining. Is it still coming down? B : No, not any more.</p> <p>A : 너 흠뻑 젖었구나 B : 응, 비가 왔었어. A : 저런, 난 비 오는지도 몰랐네. 아직도 내리니? B : 아니, 이제는 안 와.</p> <p>* 흠뻑 젖었어. = I got soaked to the skin. * 자네 코트가 흠뻑 젖었구만. = Your coat is wet through and through</p>	<p>泉石膏肱(전석고황)</p> <p>샘 천, 돌 석, 기름 고, 멍치골 황</p> <p>전석고황(泉石膏肱)은 샘과 돌이 고향(심장과 횡격막 사이)에 들었다는 뜻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을 비유한 말이다.</p> <p>전유암(田游巖)은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 은사(隱士)로 명망이 높았다. 그는 기산에 은거하여 허유(許由)가 기거하던 곳 근처에 살면서 스스로 유동린(由東隣)이라고 불렀다. 조정에서 여러 번 등용하려고 불렀으나 그는 나아가지 않았다. 나중에 고종이 송산(嵩山)에 행차하였다가 그가 사는 곳에 들러 "선생께서는 편안하신가요?"라고 안부를 묻자, 전유암이 대답하였다. "신은 샘과 돌이 고향에 걸린 것처럼,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습니다."</p> <p>[출전] <당서(唐書)> 은일전(隱逸傳)</p>	<p>話頭 huàtóu</p> <p>'話頭와 '이 뭣꼬?'</p> <p>'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라는 말에서 쓰인 화두가 무슨 의미인줄은 아시죠. '話頭'는 중국어에도 그대로 쓰이는 불교용어입니다. 불교수행 방법 중 참선에 들면서 말의 첫 마리를 붙잡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문덩어리를 헤쳐 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중국어로 "是什麼?"라고 표현하고, 한국어로는 "이 뭣꼬"라고 말합니다. 경상도식 표현이죠. 실제로 장성 백양사에 가면 돌탑에 시시머(是什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뭣꼬"로 대표되는 불교 선사상은 통일신라 때 경주지역 출신의 승려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오며 당시의 표준어인 경상도 신라어로 번역되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뭣꼬"라고 부르게 된 걸 요즘에 '무엇인가'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그 맛이 반감되게 되고 "이 뭣꼬"가 표준어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p>	<p>お酒のほうはどうですか。</p> <p>술 쪽은 어떻게습니까</p> <p>A : 南宮先生は日本料理が食べられますか。 B : すき焼きやてんぷらは食べられますが、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A : お酒のほうはどうですか。 B : ビールは飲めますが、洋酒は飲めません。</p> <p>A : 남궁선생님은 일본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B : 전골이랑 튀김은 먹을 수 있습니다만, 생선회는 먹을 수 없습니다. A : 술 쪽은 어떻게습니까? B : 맥주는 마실 수 있습니다만, 양주는 못 마십니다.</p> <p>すき焼き 전골 てんぷら 튀김 刺身 생선회 お酒 술 食べられる 먹을 수 있다(食べる의가능동사)</p>
<p><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